

# 한국생약보

만고 찾을 수 있는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쇄인

황인구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2년 2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9호

##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을 주력사업

### 국산약재 포장디자인 작업착수, 상품성 이미지 제고 차원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과 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국내 생약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약재 생산과 국산한약재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값싼 중국산 약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산 한약재의 품질을 높이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국생약협회는 2002년 시행예정인 사업내용 중 가장 주력사업의 하나로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황인구 회장은 "수입약재의 변칙유통 내지는 국산과의 혼용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약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산한약재가 수입약재와 섞이지 않고 제값 받고 유

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협회가 나서서 국산 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수입산과 국산약재의 혼용유통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순수 국산만을 가공 포장한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판매가 힘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산과 섞이지 않은 순수 국산 제품을 믿고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것. 따라서 전국적으로 협회 산하 회원들에 의해 생산된 국산한약재에 한해서는 도 단위로 품질검증 및 시험과정을 거쳐 일괄 가공 포장함으로써 유통 차별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작목반 등 약초재배 단체나 생산능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관리상태를 심사하여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

쳐 적격품에 한해 협회 차원의 자체 품질인증 표시를 발급함으로써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품질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일차적으로 국산한약재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산한약재 포장 디자인작업에 착수했다. 토종 한약재의 이미지에 걸맞는 산뜻한 느낌의 포장지로 개선할 목적으로 이미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 아울러 생약생산자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협회 로고를 공개 모집하는 한편, 국산한약재를 나타내는 심볼을 새로 제작, 일

반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선다는 의도다.

황인구 회장은 "생약재배 농민들도 이제는 고품질 생약을 생산하게 된다면 도매시장에서 단순히 결정된 가격에 따르는 입장에서 자신이 생산한 생약재에 대해 스스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가격결정자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유기농과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효능좋은 고품질의 생약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우리 생약재배 농민들도 품질이 생산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정희)

## 시호 전량수매 약속 지켜질까

지난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국산 시호 수매가 해를 넘기고도 이행되지 못한 채 수매단가를 놓고 생산자측과 소비자 측간의 줄다리기가 만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어 생산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7월9일 열린 제43차 회의시 국내 수급부족을 빚고 있는 일부 품목의 수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국내 시호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도 시호 생산량에 대한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시호 150톤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측은 생산자단체인 생약협회측과 국내산 시호를 수매하기로 약정하고 편의

상 수입을 먼저 하기로 하되 성실한 약속이행을 위해 1억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행각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생약협회가 2002년 2월 말 까지 구매 요구한 국산시호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측이 전량 인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전액을 생산자를 위한 기금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사용키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12월20일 국내 생산분 국산시호 3톤에 대해 kg당 2만7천원에 수매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한국한약제조협회 측은 이에대해 "지난 1월8일 협회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국산시

호 수매 요청가격이 시중가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kg당 1만9천원을 수매 희망 단가로 통고해 왔다.

그러나 전남 정형모 지회장은 "현 시중 국산시호 시세가 근당(6백g 기준) 1만3천5백원에서 1만5천원을 형성하고 있는 마당에 kg당 1만9천원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군다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시호 150톤 수입을 결정할 당시 국산 시호 시세는 근당 1만8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kg당 2만5천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는게 생산자측 입장이다. (문정희)

### 가 면 알 내

- 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 ..... 3면
- 중국 약재시장 동향 ..... 4면
- <바람 한마디>  
새해에는 이랬으면... ..... 7면

## 만추당귀 종자 분양합니다

만추당귀는 지난 98년 농진청 작물시험장에서 육성하고 한국생약협회가 강원도 평창군에 채종포를 조성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신품종으로 기존의 참당귀 종자에 비해 추대율이 낮고 다수성입니다.

#### ◆ 품종특성

- 적응지역은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 고랭지에서 잘 적응하는 품종임.
- 상온에서의 종자수명은 채종후 6~12개월임(4℃ 이하 저온저장 할 것)
- 직파재배 및 온상육묘 이식재배시 파종후 2년차에는 100% 추대되므로 약재 생산시에는 1년차에 수확하여야 함.
- 노지육묘 이식재배시에는 파종후 3년차에 100% 추대되므로 약재생산은 2년 차에 수확하여야 함.

◆ 분양가 : kg당 8만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생약협회(02-967-8133)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함승주(생산자, 011-9795-7887)로 연락바랍니다.